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9. 23.(금) 10:00 < 9.23.(금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9. 22.(목)
담당 부서	전력혁신정책관	책임자	과 장 강감찬 (044-203-3880)
	전력산업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조민웅 (044-203-3887)

산업부 2차관, “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”

-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-

□ **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**은 ’22.9.23.(금) **국내 산업계**와 **에너지위기 대응방안**을 **논의**하기 **위한 간담회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**에너지위기**가 **고조**되는 가운데, **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**을 **공유**하고 **위기극복 방안**을 **논의**하기 **위해 마련**되었다.

<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요 >

■ **일시/장소** : ’22.9.23.(금) 10:00~11:00 / 서울 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

■ **참석자** : 박일준 산업부 2차관(주재), 산업계 협·단체*

* 반도체산업협회, 디스플레이산업협회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철강협회, 시멘트협회, 비철금속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자동차산업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석유협회

■ **안건** :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산업여건 공유 및 위기 대응방안

□ **정부와 산업계**는 이날 간담회에서 **에너지위기의 심각성**과 **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**, **총력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**하였다.

□ 박 차관은 “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**전기요금 인상**을 **더 이상 미룰 수 없고**, **원가회수율**과 **현실적인 부담능력**을 **감안**할 때 **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**하다”고 언급하면서,

○ 또한, “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**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**과 함께 **다각적 방안도** 관계부처와 함께 **검토하겠다**”고 밝혔다.

□ 최근 **에너지 가격**이 **유례없이 폭등**하고,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**에너지 확보 경쟁**이 **격화**되면서 **에너지위기가 확대**되고 있고,

* 국제 에너지가격(’21.1Q→’22.8월) : LNG 5.5배(10→55$/MMBtu), 유연탄 4.7배(89→419$/톤)

○ 세계 주요 국가들은 **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**이며, **요금인상과 소비 절감**을 **유도**하는 한편, **생활 속 에너지절약**을 **촉구**하고 있다.

* 주요국 전기요금 상승율('21.1월→'22.6) : (英) +68%, (日) +36%, (獨) +22%, (美) +22%

□ 글로벌 **에너지위기**는 **우리에게도 당면한 현실**이며 무역적자 심화,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 **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**가 **확대**되고 있다.

○ 글로벌 **에너지 가격 폭등**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**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**는 **무역수지**에도 **부정적 영향**을 주고 있다.

* '22.1~8월 3대 에너지(원유·LNG·석탄) 수입액 증가 규모가(590억$) 무역적자폭(△251억$) 상회

○ **에너지공기업**이 전력,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**발행하는 대규모 사채**는 **민간기업의 자금조달**에도 **영향**을 미치고있다.

* 공기업 대규모 사채발행 → 시장수요 흡수 + 금리 상승 →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

□ 이러한 가운데 **에너지 요금**은 아직 **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**으로 **가격 신호**가 **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.**

* '22.上 분야별 전력사용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 :
산업용 +3.1%, 일반용 +7.6%, 주택용 +1.5%, 교육용 +8.0%, 농사용 +8.2%, 전체 +4.0%

○ OECD도 **최근 한국의 전기요금**이 **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**이며, 이로 인한 **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**를 표했다.

* IMF는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, 에너지 절약 장려를 촉구('22.8월)

□ **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**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**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**을 **동원**하여 **총력대응할 계획**이다.

○ **동계 필요물량**을 **조기에 확보**하는 한편, **정부-에너지공기업-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**를 **가동**하여 **수급관리**를 **철저**히 해나갈 예정이다.

* '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' 운영 중('22.9.1일 1차 회의 개최)

○ **에너지 절약 분위기**를 **확산**시키기 **위한 캠페인**을 **진행**하고, **에너지 효율 개선**을 **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**도 **해나갈 계획**이다.

□ 한편, 박 차관은 "**위기 극복**을 **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**"고 강조하면서 **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**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 개요**

□ 회의목적

○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 확산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

□ 회의개요

○ **일 시** : ’22. 9. 23(금), 10:00 ~ 11:00

○ **장 소** : 한전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

○ **참석자** :

- (**산 업 부**) **2차관**(주재), 에너지정책관, 전력혁신정책관, 전력산업정책과장

- (**업종단체**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전자, 철강, 시멘트, 비철금속, 기계, 자동차, 석유화학, 정유 등 10개 업종 협단체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0:00~10:03	(03’)	• **모두말씀**	2차관
10:03~10:08	(05’)	• **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및 대응방안**	전력산업정책과장
10:08~10:58	(50’)	• **토의**	참석자 전원
10:58~11:00	(02’)	• **마무리말씀**	2차관